

## ■ 2025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심층비평) 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 2025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심층비평) 사업 지원 심의
- 회의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14:00~16:00
- 회의 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 명(가나다순) : 구모룡, 김수이, 백다흠, 유성호, 정은영

2025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심층비평) 사업은 그동안 비평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준 비평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진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평단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온 비평가들이 지원한 집필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기획의 전문성과 확장성 외에도 작품 분석 역량, 문제의식의 수준을 준별하였고, 우리 시대에 커다란 생성적 의미를 끼치는 의제 설정 능력까지 심의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를 일일이 숙독하면서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접수된 지원신청서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충실하게 견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문성과 확장성은 물론 시의적 의제 설정 능력까지 겸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퀴어, 사회적 소수자, 기후위기, 환경 등에 대한 관심 등 최근 문학장에 강력하게 진입하기 시작한 비평적 키워드들을 현장에 연결해가는 능력을 보이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경향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비평이 시대의 중심과 유력하게 접속해가는 존재 방식을 가진 양식임을 보여준 사례에 심의위원들은 주목하였고,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쓰인 지원신청서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만 다소 평범해 보이는 작가론이나 작품론들을 평면적으로 묶은 사례들, 짧은 분량과 단편적 리뷰 형태를 보인 사례들, 그리고 문제의식이 불투명하여 작품이나 작가의 인용이 부적합한 사례들은 그 단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비평가 고유의 분석적 시선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 못한 경우나, 작품이나 작가들을 수동적으로 인준해주는 해설 편향 비평도 상당 부분 경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모에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주목한 비평들이 많았고, 더불어 문장이나 비평 형식에서도 꾸준한 공력을 들인 인상적인 실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앞으로 우리 비평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매우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선정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에 심의위원 모두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비평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시대에, 이러한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비평 분야에 더욱 커져가기를 희망해봅니다.

2025년 문학 비평담론 활성화(심층비평) 사업 심의위원 일동